

小兒科 外來 患者의 主訴證에 관한 考察

송인선*, 신지나*, 신원규**

* 동서한방병원 소아과 전공의, ** 동서한방병원 소아과장

A Study of the Chief Complaints of Pediatric Outpatients

Song In-Sun, Shin Ji-Na, Shin Youn-Guo.

Dept. Of Pediatric Dong Seo Oriental Medicine Hospital,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llect statistics of pediatric problems, and so to investigate the new effective oriental medicine treatments in pediatric disease and its clinical applicability.

The Study was composed of 698 new patient who had been treated at the pediatric unit in th Dong Seo Oriental Medical Hospital for 1year, from 1 September 2001 to 31 October 2002, and aged between 0 and 18 years. The Chief complaints and their care-givers.

Result :

1. In the study, male children are 403 and female children are 295. So the sex ratio between male and female is 1.37 : 1.
2. In age distribution, 0-3 years : 317(45.4%), 4-6 years : 148(21.2%), 7-9 years : 98(14.0%), 10-12 years : 66(9.5%), 13-15 years : 40(5.7%), 16-18 years 29(4.2%).
3. The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systemic division was Respiratory diseases covers 30.1%, Digestive diseases covers 20.8%, Physique diseases covers 10.6%.
4. The Respiratory diseases tended to increase in autumn and appeared mostly in the age group between 0 and 9 years. The Digestive diseases increase in summer and appeared mostly in the age group between 10 and 12 years. The physique diseases increase in winter and appeared mostly in the age group between 13 and 18 years.
5. Most of patient came to the hospital from diseases such as common cold, weakness, dyspepsia, atopic dermatitis, rhinitis, take a easy cold, short stature, sweating, Bell's palsy, abdominal pain, etc.

Conclusion :

1. The chief complaint in pediatric diseases that needed an oriental medical treatment was mainly the disease that tends to take long time and the weakness, and appeared frequency in respiratory and digestive disease.

2.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was still preferred as a way to improve the weakness by patients, rather than a way to overcome their disease. in particular, the study shows that the oriental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mphasized in terms of preventing the disease.

3. The new disease, which were developed with change of human life and environment, should be investigated as a new field of oriental medical treatment.

Key word: chief complaints, pediatric outpatient

I. 緒論

소아과학은 태아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연령에 따른 건강의 표준을 강구하고 소아특유의 생리, 병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방법을 연구하며 특히 동의학적인 섭생법을 연구 검토하여 제정하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¹⁾

소아의 생리, 병리는 성인과 크게 달라 병의 양상과 종류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전래의 한의학에서는 소아의 4대 질병을 痘, 癩, 驚, 疳이라 하여 중요시하였으나 최근에는 예방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개선, 환경의 변화로 4대 질병 중 驚症만이 소아과 영역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환경의 오염과 stress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새로운 소아과의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 鬚²⁾, 疳³⁾, 疔⁴⁾ 등이 꾸준히 소아과 주소증에 대한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고 있으나, 아직 양방의 경우처럼 폭넓은 통계자료가 축적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에 소아과 외래 환자의 주소증 분석을 통하여 첫째, 최근의 소아질환의 양상에 대한 통계자료의 축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둘째, 소아질환에서 한의학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 또한 앞으로 한방 소아과학에서 보강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II. 研究對象 및 方法

1. 研究대상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서한방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0세부터 18세까지의 초진환자 69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方法

초진환자의 초진기록부를 중심으로 성별, 연령, 내원 시의 주소증, 계절적 변화를 계통적으로 분류하였다. 주소증의 분류는 한방소아과학 교과서의 계통적분류를 따랐으며 연령은 소아의 생활상을 기준으로 0-3세, 4-6세(취학전), 7-9세(초등학교 저학년생), 10-12세(초등학교 고학년생), 13-15세(중학생), 16-18세(고등학생)로 분류하였다.

Ⅲ. 結果

1. 性別 및 年齡 分布

성비는 남아 403명(57.7%), 여아 295명(42.3%)으로 약 1.37 : 1의 비율로 남아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13-15세의 중학생이 1.22 : 1로 가장 성비가 낮았으며, 16-18세의 고등학생의 성비가 1.64 : 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0-3세까지가 317명(45.4%)으로 가장 많았고, 4-6세가 148명(21.2%), 7-9세가 98명(14.0%), 10-12세가 66명(9.5%), 13-15세가 40명(5.7%), 16-18세가 29명(4.2%)으로 남녀 공히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Table 1. The number of New Outpatients according to sex and age

	M	F	성비	계	백분율
0-3	177	140	1.26	317	45.4
4-6	89	59	1.51	148	21.2
7-9	60	38	1.58	98	14.0
10-12	37	29	1.28	66	9.5
13-15	22	18	1.22	40	5.7
16-18	18	11	1.64	29	4.2
계	403	295	1.37	698	100

2. 月別 來院患者 分布

월별분포를 살펴보면 2001년 9월에 내원한 환자는 50명(7.2%)이고 10월에 65명(9.3%), 11월에 61명(8.7%), 12월에 50명(7.2%), 2002년 1월에 73명(10.5%), 2월에 48명(6.9%), 3월에 54명(7.7%), 4월에 60명

(8.6%), 5월에 61명(8.7%), 6월에 60명(8.6%), 7월에 55명(7.9%), 8월에 61명(8.7%)으로 2002년 1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내원하였으며, 2001년 10월, 11월, 2002년 5월, 8월의 순이며 2002년 2월에 내원한 환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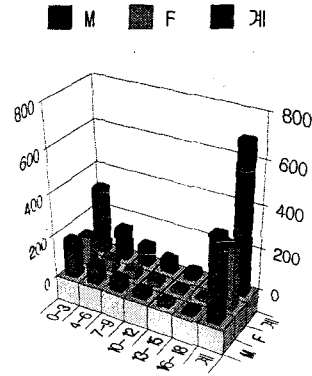


그림 1 The number of New Outpatients according to sex and age

Table 2.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month

	M	F	계	백분율
'01. 9월	31	19	50	7.2
10월	36	29	65	9.3
11월	37	24	61	8.7
12월	28	22	50	7.2
'02. 1월	43	30	73	10.5
2월	32	16	48	6.9
3월	36	18	54	7.7
4월	33	27	60	8.6
5월	25	36	61	8.7
6월	34	26	60	8.6
7월	33	22	55	7.9
8월	35	26	61	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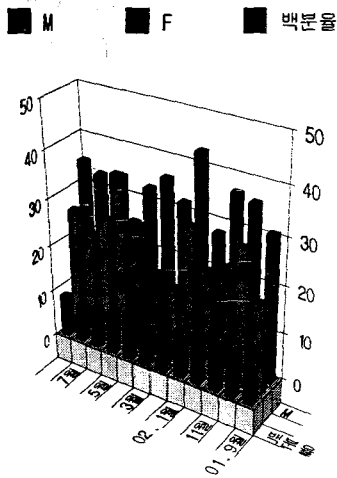


그림 2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month

3. 季節別 分布

가을(9, 10, 11월)에는 176명, 겨울(12, 1, 2월)에는 171명, 봄(3, 4, 5월)에는 175명, 여름(6, 7, 8월)에는 176명으로 계절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봄에 남아보다 여아의 내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Table3)

Table 3.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seasons

	M	F	계
가을	104	72	176
겨울	103	68	171
봄	94	81	175
여름	102	74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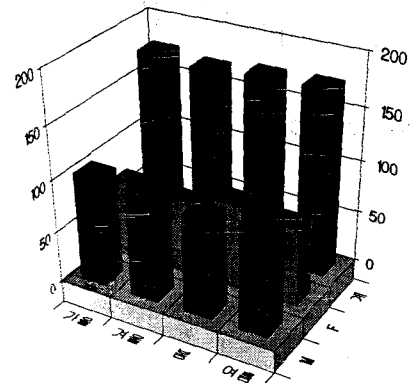


그림 3 The number of Patients according to seasons

4. 主訴證의 系統的 分類

전체 내원환자 중 호흡기계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210(30.1%)으로 가장 많았고, 소화기계 환자는 145명(20.8%), 근골격계 환자는 74명(10.6%), 신경계 환자 52명(7.4%), 피부 환자 48명(6.9%), 비뇨생식기계 13명(1.9%), 기타 155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아의 경우 피부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가 21명(7.1%)으로 신경계 환자 17명(5.8%)보다 많았다.(Table 4.)

Table 4. The Number of Systemic Division

	M	M(%)	F	F(%)	계	%
호흡기계	120	29.8	90	30.5	210	30.1
소화기계	86	21.3	59	20.0	145	20.8
근골격계	46	11.4	28	9.5	74	10.6
신경계	35	8.7	17	5.8	52	7.4
피부	27	6.7	21	7.1	48	6.9
비뇨생식	5	1.2	8	2.7	13	1.9
기타	84	20.8	61	20.7	155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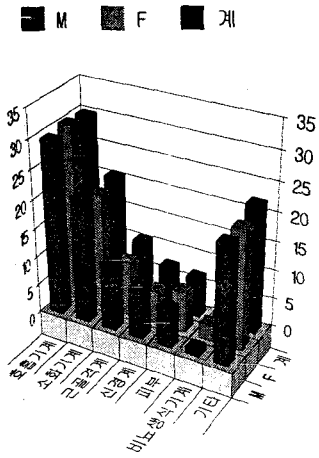


그림 4 The Percent of Systemic Di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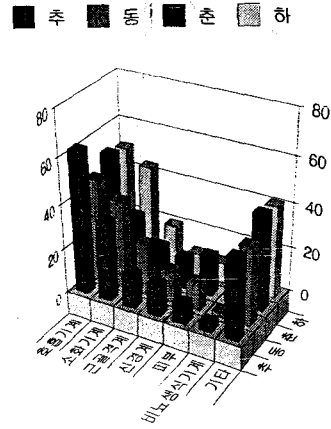


그림 5. The number of Systemical Division according to seasons

5. 季節別 系統分類

계절별로 내원환자들의 주소증을 계통적으로 분류하면 호흡기계질환은 가을에 63명(30%)으로 가장 많고, 소화기계질환은 여름에 44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은 겨울에 23명(31.1%), 피부질환은 봄에 18명(37.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질환들은 크게 계절적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Table 5. The number of Systemical Division according to seasons

	추	동	춘	하	계
호흡기계	63	46	52	50	210
소화기계	35	39	27	44	145
근골격계	15	23	16	20	74
신경계	14	14	14	10	52
피부	9	12	18	9	48
비뇨생식기계	4	2	5	2	13
기타	36	35	43	41	155
계	176	171	175	176	698

6. 年齡別 系統分類

비교적 어린 0-3세, 4-6세, 7-9세의 소아의 경우 호흡기계질환으로 내원한 경우가 각각 112명(35.3%), 52명(35.1%), 30명(30.6%)으로 가장 많았으며, 10-12세의 소아는 소화기계질환이 15명(22.7%)으로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아서 각각 11명(27.5%), 10명(34.5%)을 차지했다.(Table 6-1, Table 6-2)

Table 6-1. The number of Systemical Division according to age

	0-3	4-6	7-9	10-12	13-15	16-18
호흡기계	112	52	30	11	3	2
소화기계	72	25	18	15	8	7
근골격계	10	11	19	13	11	10
신경계	37	4	5	3	2	1
피부	28	10	4	4	2	0
비뇨생식	3	7	3	0	0	0
기타	55	39	19	20	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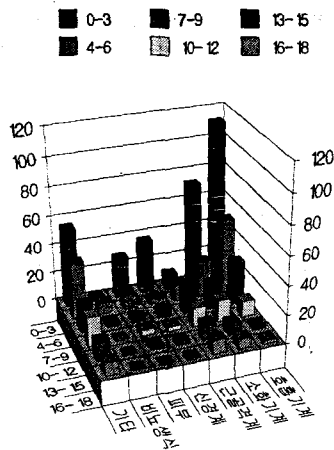


그림 6-1. The number of Systemical Division according to age

■ 호흡기계 ■ 근골격계 ■ 피부 ■ 기타
 ■ 소화기계 ■ 신경계 ■ 비뇨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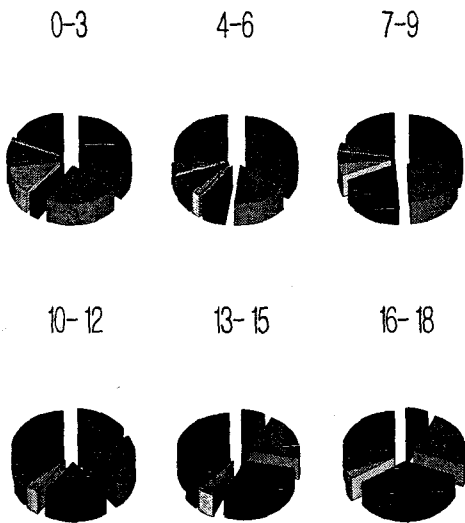


그림 6-2. The Percent of Systemic Division according to age

Table 6-2. The Percent of Systemic Division according to age

	0-3	4-6	7-9	10-12	13-15	16-18
호흡기계	35.3	35.1	30.6	16.7	7.5	6.9
소화기계	22.7	16.9	18.4	22.7	20.0	24.1
근골격계	3.2	7.4	19.4	19.7	27.5	34.5
신경계	11.7	2.7	5.1	4.5	5.0	3.4
피부	8.8	6.8	4.1	6.1	5.0	0
비뇨생식	0.9	4.7	3.1	0	0	0
기타	17.4	26.4	19.4	30.3	32.5	31.0

7-1. 消化器系의 主訴證 分類

食慾不振, 腹痛, 嘔吐, 泄瀉, 便秘, 食滯, 胃脘痛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이중 食慾不振이 62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이 腹痛은 22명(15.2%), 嘔吐 19명(13.1%), 泄瀉 19명(13.1%), 便秘 16명(11.0%), 食滯 6명(4.1%)으로 나타났다.(Table 7-1)

Table 7-1.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Digestive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소 화 기 계	식욕부진	17	16	10	19	62	42.8
	복통	2	9	6	15	22	15.2
	구토	5	5	3	6	19	13.1
	설사	7	3	1	8	19	13.1
	변비	3	3	7	3	16	11.0
	식체	1	2	0	3	6	4.1
	기타	0	1	0	0	1	0.7
	계	35	39	27	44	145	

7-2. 呼吸器系의 主訴證 分類

感冒, 鼻炎, 易感冒, 喘息, 中耳炎, 氣管支炎, 肺炎, 衄血, 扁桃腺炎 등을 주소로

하며, 이 중 感冒가 98명(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易感冒와 鼻炎은 각각 34명(16.2%), 喘息 18명(8.6%), 中耳炎 6명(2.9%)으로 나타났다.(Table 7-2)

Table 7-2.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Respiratory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호흡기계	감모	27	19	21	31	98	46.7
	비염	9	8	9	8	34	16.2
	이감모	16	4	8	6	34	16.2
	천식	4	7	4	3	18	8.6
	중이염	1	2	2	1	6	2.9
	기타	6	6	8	1	21	10.0
	소계	63	46	52	50	210	

7-3. 泌尿生殖器系의 主訴證 分類

夜尿, 小便頻數, 帶下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그중 夜尿가 8명(61.5%)으로 가장 많았으며 頻尿는 3명(23.1%)으로 나타났다.(Table 7-3)

Table 7-3.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Urinary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비뇨생식	야뇨	4	0	3	1	8	61.5
	빈뇨	0	1	1	1	3	23.1
	기타	0	1	1	0	2	15.4
	소계	4	2	5	2	13	

7-4. 神經系의 主訴證 分類

驚氣, 夜驚, 夜啼, 腦性麻痺, 睡眠障礙, tic, 痙攣, 易驚 등을 주소로 하며 驚氣가 13명(25%)으로 가장 빈도가 높았고, 夜驚, 夜啼 10명(19.2%), 腦性麻痺 8명(15.4%),

睡眠障礙 7명(13.5%), tic 3명(5.8%) 등으로 나타났다.(Table 7-4)

Table 7-4.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Nervous and Mental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신경계	경기	2	3	5	3	13	25.0
	야경,야제	4	3	3	0	10	19.2
	뇌성마비	3	4	0	1	8	15.4
	수면장애	3	3	1	0	7	13.5
	TIC	0	0	2	1	3	5.8
	기타	2	1	3	5	11	21.6
	소계	14	14	14	10	52	

7-5. 筋骨格系의 主訴證 分類

成長障礙, 下肢痛, 捻挫, 骨折, 關節炎, 轉筋 등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成長遲延을 주소로 한 경우가 31명으로 41.9%를 차지했다. 그밖에 下肢痛 16명(21.6%), 捻挫 10명(13.5%)으로 나타났다.(Table 7-5)

Table 7-5.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musculoskeletal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근골격계	성장지연	6	11	8	6	31	41.9
	하지통	4	4	3	5	16	21.6
	염좌	1	1	3	5	10	13.5
	기타	4	7	2	4	17	23.0
	소계	15	23	16	20	74	

7-6. 皮膚科의 主訴證 分類

아토피성 皮膚炎, 搔痒感, 두드러기를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으며, 아토피성피부염 환자가 36명(75%), 搔痒感(7명, 14.6%), 두드러기(5명, 10.4%)이다.(Table 7-6)

Table 7-6.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Skin Disease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
피부부	아토피	6	9	14	7	36	75.0
	소양	1	1	4	1	7	14.6
	두드러기	2	2	0	1	5	10.4
	소계	9	12	18	9	48	

7-7. 其他 主訴證의 分析

그 밖에 虛弱, 汗出, 口眼喎斜, 發熱, 頭痛, 手足冷, 眩暈, 頭項痛, 등의 주소증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있었다.(Table 7-7)

Table 7-7.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 General Symptoms

		가을	겨울	봄	여름	계
기타	허약	23	12	23	18	76
	한출	5	5	7	8	25
	구안와사	4	7	4	6	22
	발열	2	2	6	4	14
	두통	1	2	2	3	8
	수족냉	0	3	0	0	3
	기타	1	4	1	2	7
	소계	36	35	43	41	155

8. 多發하는 主訴證순 分類

내원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感冒가 98명(1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虛弱(76명, 10.9%), 食慾不振(62명, 8.9%), 아토피성 皮膚炎(36명, 5.2%), 鼻炎(34명, 4.6%), 易感冒(34명, 4.6%), 成長遲延(31명, 4.4%), 汗出(25명, 3.6%), 口眼喎斜(22명, 3.2%), 腹痛(22명, 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440명으로 전체의 63%로 나타났다.(Table 8-1)

남아의 경우도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口眼喎斜와 腹痛 대신 喘息과 嘔吐를 주소로 하는 환자가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는 순서에만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났다.(Table 8-2, Table 8-3)

Table 8-1.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ir Frequency(Total)

	명수	백분율
감모	98	14.0
허약	76	10.9
식욕부진	62	8.9
아토피성 피부염	36	5.2
비염	34	4.6
이감모	34	4.6
성장지연	31	4.4
한출	25	3.6
구안와사	22	3.2
복통	22	3.2
계	440	63.0

Table 8-2.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ir Frequency(Male)

M	명수	백분율
감모	52	12.9
허약	44	10.9
식욕부진	39	9.7
비염	22	5.5
아토피성 피부염	20	5.5
이감모	20	5.0
성장지연	16	4.0
한출	14	3.5
천식	14	3.5
구토	13	3.2
계	254	63.0

Table 8-3. The number of Chief complaint according to their Frequency(Female)

F	명수	백분율
감모	46	15.6
허약	32	10.8
식욕부진	23	7.8
아토피성 피부염	16	5.4
성장지연	15	5.1
이감모	14	4.7
복통	13	4.4
비염	12	4.1
한출	11	3.7
구안와사	10	3.4
계	192	65.1

IV. 考察

소아는 신체적으로 臟腑肌肉이 형성되었다고는 하나 아직 연약할 뿐 아니라 특히 정신, 심리적 작용이 전혀 완비되지 못하여 심신이 아울러 발육, 성장과정에 있어 자연히 생리적 현상이 성인과는 판이하다. 즉 장부의 발달이 미숙하며 형태학적으로 불완전하며, 성장, 발육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하며 성인의 축소판이 아니다.¹⁾

소아는 장부가 연약하고 형기가 충실하지 못하므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하고 한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으며 음식 절제를 잘못하므로 밖으로는 육음의 침입을 당하고 안으로는 음식 손상을 받게 되니 비, 폐질환이 비교적 많다. 또한 소아는 비교적 발병하기 쉬우며 변화가 빠른

데 특히 한열허실위 변화가 성인에 비하여 빠르다. 반면에 성장기능이 왕성하고 장기가 청영하며 활력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환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간호를 하면 질병의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

과거에 소아에 있어서의 주요한 질환은 감염증과 영양장애였다. 고대에는 癩, 痘, 驚, 疳을 소아과의 사대요증이라 하여 중요시 하였으며 비교적 발병율이 높은 질환이었다. 그러나 경제 상태가 개선되고 예방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런 질환들은 급격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히려 주변환경과 생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질병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또한 양방 의학이 사회전체적으로 대중화되어 한의학의 위상이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사회, 경제, 환경적인 전반적인 변화에 따라 최근 소아과에 내원하고 있는 환자의 주소증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한의학의 연구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양방소아과 영역에서는 이미 질병 및 사망통계에 관한 보고들이 적지 않게 쌓여 있는 바이고, 한방소아과에서는 李⁵⁾, 崔⁶⁾, 吳²⁾, 申³⁾ 李⁴⁾ 등이 주소증에 대한 보고를 시도하여 매년 자료가 축적되고 있다.

외래 환자의 주소증 분석이 이러한 질병변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동서한방병원 소아과에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내원한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주소증을 분석하였다.

초진환자의 남녀성비는 전체적으로 1.37 : 1로 남아가 많았다. 연령별 성비도 0-3

세 1.26 : 1, 4-6세 1.51 : 1, 7-9세 1.58 : 1, 10-12세 1.28 : 1, 13-15세 1.22 : 1, 16-18세 1.64 : 1로 나타나 전체 연령에 걸쳐 심각한 남아선호사상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뚝²⁾의 1.35 : 1, 이⁴⁾의 1.38 : 1과 거의 유사하나, 이³⁾의 1.15 : 1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연령별 분석은 신생아기(생후 1개월까지), 영아기(1개월-1세이하), 유아기(1세-6세), 학동기(7세-12세), 사춘기(13세-15세)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나¹⁾ 우리나라의 환경상 학교생활이 소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취학연령을 기준으로 0-3세, 4-6세(취학전), 7-9세(초등학교 저학년생), 10-12세(초등학교 고학년생), 13-15세(중학생), 16-18세(고등학생)로 분류하였다. 연령분포는 0-3세가 45.4%로 가장 높고 4-6세가 21.2%로 나타나 0-6세의 소아가 전체의 66.6%를 차지하여 학령 전기의 소아가 주로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연령군에 따라 내원 환자가 연령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릴수록 질병에 대한 이환율이 높고 병세가 급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으로 인한 시간적 제한이 많아지며 타과로 전과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월별 분석에는 1월에 전체의 10.5%의 환자가 내원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월별경향성에 대한 큰 유의성은 찾지 못하였다.

계절별 분석을 살펴보면 봄(25.1%), 여름(25.2%), 가을(25.2%), 겨울(24.5%)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에 내원환자 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은 주환

자층인 영유아층의 내원율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주소증의 계통적분류를 분석하면 호흡기계환자가 전체의 30.1%로 가장 많고 소화기계환자가 20.8%로 나타난다. 소아의 특징상 비폐질환이 다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이⁴⁾의 호흡기계 37.4%, 소화기계 23.6%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는 비폐질환이 있는 소아가 질환자체보다는 허약을 주소로 내원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계통분류상 순환기계와 감염병의 환자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최근 감염병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와도 관련이 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한방병원보다는 양방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계절별로 내원환자들의 주소증을 분류하면 호흡기계질환은 가을에 30%로 가장 많고, 소화기계질환은 여름에 30.3%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은 겨울에 31.1%, 피부질환은 봄에 3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른 질환들은 크게 계절적 경향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선행된 이³⁾의 보고에서는 호흡기계질환자가 가을(32.3%)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와 일치하였으나, 소화기계질환자는 봄(29.6%)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것으로 이번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로 내원환자들의 주소증을 분류하면 비교적 어린 0-3세, 4-6세, 7-9세의 소아의 경우 호흡기계질환으로 내원한 경우가 각각 35.3%, 35.1%, 30.6%로 가장 많았으며, 10-12세의 소아는 소화기계질환이 22.7%로 가장 많았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아서 각각

27.5%, 34.5%를 차지했다. 호흡기계질환으로 내원하는 비율은 연령증가에 따라 점점 감소해서 연령증가에 따라 장부가 충실해져서 폐의 기능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근골격계질환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 활동범위가 늘어나 손상을 입을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호흡기계질환의 감소로 인해 상대적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호흡기계의 경우는 咳嗽, 咽痛, 惡寒, 發熱 等 外感으로 인한 感冒가 전체의 46.7%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아의 경우 기본적으로 폐기가 부족하고 면역력이 약하여 감모에 걸리는 수가 많은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지속적인 양방치료로 인한 부작용과 면역력 약화를 우려한 부모들에게 이런 경우 한방치료가 우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도 감모로 내원하는 소아가 많은 이유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감모 환자의 계절적 특성을 보면 여름(31.6%)과 가을(27.6%)에 가장 많이 내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여름에 냉방병으로 인한 감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소화기계의 주소증을 분류해 보면 食慾不振이 4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다양화되는 과정에서 소아들은 인스턴트 음식을 쉽게 접하게 되고 식사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각종 간식과 편식으로 인하여 비기능이 상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호흡기계와 소화기계질환 다음으로는 근골격계의 질환의 비율이 높는데 이중에

서 成長遲延을 주소로 하는 환자가 41.9%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신경계, 피부, 비뇨생식기계의 내원환자는 각각 전체의 10%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비뇨생식기계의 경우 주로 夜尿症과 小便頻數의 경우에 한방병원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환자의 2%에도 미치지 않는 비율이다. 이는 이들 분야의 한방치료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발하는 주소증을 순서대로 분석해 보면 내원환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感冒가 1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다음으로 虛弱(10.9%), 食慾不振(8.9%), 아토피성 皮膚炎(5.2%), 鼻炎(4.6%), 易感冒(4.6%), 成長遲延(4.4%), 汗出(3.6%), 口眼喎斜(3.2%), 腹痛(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기 주소로 내원한 환자가 440명으로 전체의 63%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도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口眼喎斜와 腹痛 대신 喘息과 嘔吐를 주소로 하는 환자가 많았으며, 여아의 경우는 순서에만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선행된 申¹⁶⁾의 연구에 의하면 捻挫(13.3%), 虛弱(11.6%), 喘息·咳嗽(7.8%), 食慾不振(6.7%), 感氣(5.9%), 鼻塞·鼻涕(5.1%), 發汗過多(3.9%), 消化障礙(3.9%), 皮膚發疹(3.5%), 驚氣(2.8%)의 순으로 이번 보고와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는 1년이라는 단기간과 한방병원 한 곳에서의 제한된 자료만을 통계처리했으므로, 소아질환의 대체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자료의 축적에는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나 이를 소아일반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존에 선행된 연구들도 대부분 한방병원을 방문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각각의 분류체계나 연령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한방소아과의 표준을 세우고자 하는 여러 연구자들의 협력으로 좀더 광범위한 자료조사와 공통된 분류기준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結 論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1년 동안 동서한방병원 소아과의 외래 초진환자 698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698명중 남아는 403명 여아는 295명으로 성비는 1.37 : 1 이었다.

2. 연령별 분포는 0-3세가 전체의 45.4%로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3. 월별 내원환자는 1월에 가장 많았고 계절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주소증을 계통적으로 분류하면 호흡기계(30.1%), 소화기계(20.8%), 근골격계(10.6%), 신경계, 피부, 비뇨생식기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계절별로 호흡기계질환은 가을에(30%), 소화기계질환은 여름에(30.3%), 근골격계질환은 겨울에(31.1%), 피부질환은 봄에(37.5%) 가장 많았다.

6. 연령별로 0-9세의 소아는 호흡기계질환이, 10-12세의 소아는 소화기계질환이, 13-18세의 소아는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았다.

7. 소화기계는 食慾不振(42.8%), 호흡기계는 感冒(46.7%), 비뇨생식기계는 夜尿(61.5%), 신경계는 驚氣(25%), 근골격계는 成長遲延(41.9%), 피부질환은 아토피성 피부염(75%)을 가장 많이 주소로 하였다.

8. 전체 주소증의 다발빈도를 살펴보면 感冒(14%), 虛弱(10.9%), 食慾不振(8.9%), 아토피성 皮膚炎(5.2%), 鼻炎(4.6%), 易感冒(4.6%), 成長遲延(4.4%), 汗出(3.6%), 口眼喎斜(3.2%), 腹痛(3.2%)의 순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1. 정규만 : 동의소아과학, 서울, 행림출판, 1985, 31, 33-35
2. 오하석, 김장현 :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8:12(1), 63-76
3. 신지나, 신원규 :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 및 허약아에 관한 연구,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0:14(2), 149-168

4. 이승연 : 소아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관한 임상적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2001:15(1), 203-216
5. 이진용, 정재환, 김덕곤, 정규만 :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고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 1996:10(1), 201-19
6. 최윤정, 김장현 : 한방병원 소아과 외래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대한정보학회지, 1996:2(1), 99-105